

한국농어촌공사 문경지사, 2026년 신규 청년농업인 대상으로 사업 홍보 총력

지난 15일 지역 내 신규 청년농업인의 성공적인 정착과 안정적인 영농 기반 마련을 위한

문경시민신문 기자 / ctn6333@hanmail.net 입력 : 2026년 09월 16일(수) 18:00



© 문경시민신문

한국농어촌공사 문경지사(지사장 이병탁)가 지난 15일 지역 내 신규 청년농업인의 성공적인 정착과 안정적인 영농 기반 마련을 위한 ‘농지은행으로 슬기로워질 청년농 생활!’캠페인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이번 캠페인은 영농 초기 자본과 기반이 부족한 청년농업인들에게 농지은행 맞춤형 농지지원사업 및 다양한 농지 지원 제도를 효과적으로 안내하여, 농업 진입 장벽을 낮추고 지역 농업의 활력을 제고하기 위해 추진되었다.

문경지사는 청년농업인들의 정보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온·오프라인을 아우르는 다각적인 홍보 활동을 펼쳤다. 현장에서 컨설팅 카드를 바탕으로 청년농 대상 1:1 맞춤형 컨설팅을 제공하였고, 농지은행 카카오톡 브랜드 채널(농어촌드림) 친구 추가를 통한 양방향 소통 창구를 마련하였다.

이병탁 지사장은 “미래 농업의 주역인 청년농업인들이 지역에 안정적으로 정착하고 농업 경영을 이어나갈 수 있도록 최선의 지원을 다하겠다”며 “앞으로도 청년농의 눈높이에 맞춘 현장 중심의 홍보 활동을 강화해나가겠다”고 밝혔다.

url : http://www.mgnews.kr/default/index_view_page.php?part_idx=235&idx=76250

Copyrights ©문경시민신문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프린트하기](#) [닫기](#)